

[보도자료] 쿠팡, 지역 중소기업인 온라인 판로 확대에 ‘온 힘’

2021. 7. 2.

- 경북 서부권 상품품평회 진행 입점 상담부터 경북세일페스타 기획전 참가까지 지원
- 쿠팡 카테고리별 브랜드 매니저가 현장에서 직접 온라인 판매 노하우 전달해

2021. 7. 2. 서울 — 쿠팡이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온라인 판로확대와 판매지원에 온힘을 쏟는다. 쿠팡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쿠팡 입점을 희망하는 경상북도 서부권 소재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2021 경북세일페스타 로켓배송 상품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에 진행된 품평회에는 경상북도 소재 영세,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50여개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표고버섯, 된장, 고추장 등 지역특산품부터 가공식품, 소형 전자제품까지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선보이고, 온라인 판매 노하우를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쿠팡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지난달 30일 김천시 로제니아 호텔에서 쿠팡 입점을 희망하는 경상북도 서부권 소재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2021 경북세일페스타 로켓배송 상품 품평회’를 개최했다.

쿠팡은 상품 품평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직매입 로켓배송 입점 방법을 안내하고, 온라인 판매가 생소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 정보를 제공했다. 여기에 쿠팡 카테고리별 브랜드매니저(BM)들이 참석해 마케팅, 홍보, 상품검색 등 온라인 판매의 노하우를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충섭 김천시 시장, 배성길 경북도청 강소기업실장, 전창록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장영철 쿠팡 정책협력 전무, 김현숙 쿠팡 서비스정책 상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중소기업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경북 지역의 우수상품을 살펴봤다.

이번 상품 품평회를 통해 쿠팡 로켓배송에 입점 한 업체는 쿠팡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힘내요 대한민국, 경북 세일 페스타 기획전’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쿠팡 ‘경북 세일 페스타 기획전’은 3월부터 12월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10억 원 규모의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쿠팡이 추가 10억 원 규모의 마케팅, 광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쿠팡은 앞으로도 지역 상생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장영철 쿠팡 정책협력 전무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지역 중소기업인에게 이번 품평회

는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고,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